

지역 매 아리

유진섭 정읍시장, 소통 강화 직원과의 '즉문즉답' 나서

유진섭 시장이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유 시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고 느낀 애로사항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정운영과 지역 현안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직원과의 대화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늘 읍면동 직원 2명과 대화를 시작으로 총 120여 명의 7~9급 직원들이 대화에 참여한다. 시장에게 바라거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을 현장에서 질문하며 현장에서 답하는 '즉문즉답'으로 진행된다.

특히 점심 식사나 가벼운 차를 같이 마시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시장은 "시장과 직원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언된 직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검토를 통해 부서별 협업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 시장은 7월 30일 직원 38명과 두 번째 대화를 진행하며 월까지 시청 직원들과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신개념 고령자복지주택 본격 추진

고창군, 설계사와 함께 1차 실무회의 가져... 내년부터 본격 공사 착수

쉽게 여담을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와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현관에는 의자가 있고, 문턱이 없다. 또 노인의 키에 맞도록 싱크대의 높이를 낮추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등이 설치된다.

고창군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역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과 연령,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고안된 환경을 말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4일) 오후 주)아인디자인 건축사와 함께 고령자복지 주택 설계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단지 배치도, 세대별 구조, 각종 복지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해 어르신들을 배려한 설계가 되도록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문턱 제거,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 '베리어프리(무장애)' 설계가 도입된다.

또 1층에는 공동세탁실, 푸드마켓,



고창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예정지.

교육 프로그램실, 요리실습실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주거와 공동 활동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고택형 노인복지주택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기본실시설계 후 내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완료,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오래 세월 사회의 주역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온 고령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 위해!

부안군, 북미 세계잼버리 참관단 파견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18명 규모로 구성된 제2회 북미 세계잼버리(7월 22일~8월 2일) 참관단이 25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미 세계잼버리에는 부안군 대표 참가단 27명을 비롯해 한국대표단 600여명이 참가하며 여성가족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익현 군수 등 100여명이 함께 참관해 2023 부안 세계잼버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부안군 참관단은 이날 출국해 오는 28일까지 미국 뉴욕 퀸즈현회를 방문하고 북미 세계잼버리장으로 이동한다.

퀸즈현회 방문은 지난 6월 부안군과 미국 뉴저지주 대표적 한인타운인 리지필드가 부안 농수특산물 수출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그와 연계해 이뤄진 것으로 간담회와 시장조사 등을 통해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참관단은 오는 31일 미국 웨

스트버지니아에서 개최 중인 북미 세계잼버리에 참가해 지난 22일 출국한 부안군 대표 참가단 27명과 함께 2023 부안 세계잼버리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1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한국리셉션에 참여해 전 세계 스카우트 회원국 대표단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부안을 소개하고 2023 부안 세계잼버리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오는 8월 1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해 4년 뒤 제2회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서대결기도 이양받게 된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부안군과 뉴욕 퀸즈현회가 농수특산물 수출은 물론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 세계잼버리 참관을 통해 2023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정읍시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엑스포에는 20개국 350개사가 참여한다. 400여 부스에서 기업과 기업 간 및 기업과 사업자 간 마케팅 지원, 온라인과 언론홍보 지원 컨설팅, 우수상품 출품 전시가 진행된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 입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기업참가신청서와 전시품목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과 수상 내역 사본, 제품 홍보물 등이다.

지난해에는 4개 업체가 참여해 구절초차와 발효차, 요구르트 등 기능성을 함유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539-6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안돼요"

고창군, 내달부터 과태료 인상

고창군이 오는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

며,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화를 없애기 위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가 해당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인 점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관내 소화전 주변 38곳에 7월말까지 안내문구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보다도 '나 하나쯤은 관철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기업체 애로 해소나섰다

유진섭 시장이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해소에 나섰다.

관련해 유 시장은 지난 24일 농수농공단지 내 대우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 시장의 현장방문은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민선 7기 핵심 시장방침인 '살맛 나는 첨단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부품은 1973년 전신인 대한마루(주) 창업 이래, 국내 최초로 탄탈륨콘덴서 양산을 개시하며 1983년 현상호인 대우전자부품(주)으로 변경됐다. 1993년 전장부품 양산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중국, 미국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외 부품 협력사 17개사와 현

대·GM 등 완성차 중장비 업체 6개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특허 25건과 디자인 27건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경쟁력이 높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대우전자부품은 전북지역 내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범 스마트공장도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추진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은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설비, 자동화솔루션이 융합돼 제품을 적시에 생산·납품할 수 있다.

대우전자부품은 2013년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상 수상, 2015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2016년 전라북도 글로벌 우수기업 선정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준교 대표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자동차부품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읍시민 채용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사전설명회 큰 호응

부안군은 24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덕형 단장(한국농업아카데미)을 강사로 모시고 '20년 청년창업농 후계농 지원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지원하여 건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하고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

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60여명의 청년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사업설명, 청년계획서 작성요령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문갑 부안군 농업정책과장은 "청년창업농, 후계농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수개월 전부터 평가 기준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며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안군 농업발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ongsanwine.com